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광주 13/20℃ 목포 15/19℃ 여수 15/20℃
단기 4342년 (음력 9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0호 1판
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이젠 문화전당 조기건립 힘 모을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18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문화전당 조기건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 1년 3개월 여 동안 별관 철거반대 농성을 벌였던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별관 일부존치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 농성을 풀었다. /최현배기자 choi@

23일께 통합 여론조사

무안반도·광양만권 등 전국 18개권역 1주일간

무안반도(목포·무안·신안)와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구례) 등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권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23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각 지역에서 요청한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3~24일부터 1주일간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별 내용이 취합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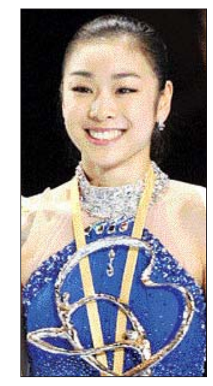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 46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질문 항목은 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단순한 내용이고, 통합 대상 지역이 엇갈리는 곳은 건의된 '짝짓기 조합'별로 찬성 여부를 묻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통합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을 경우 각 의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통합 찬반을 둘러싼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거쳐 검·경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역시 피겨퀸

김연아 또 세계新 우승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그랑프리 대회 6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18면〉

김연아는 18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파리 '팔레 옴니스포르 드 파리-베르시'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3.95점을 기록, 전날 쇼트프로그램(76.08점) 점수를 합쳐 총점 210.03점으로 가볍게 1위에 올랐다.

이날 김연아의 점수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역대 최고점(207.71점)을 2.32점이나 끌어올린 세계 신기록이며, 프리스케이팅 점수 역시 역대 최고점이다. /연합뉴스

광주 651억 학교 냉난방기
비싼 전기료에 고철될 판

올 여름 가동 제한, 겨울에도 되풀이 우려

'찜통·동태 교실'을 없애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최신형 냉·난방기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들이 올 여름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의 가동을 제한한 데다, 겨울철 난방기 가동 때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부턴 에어컨 가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초·중·고교들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105곳을 비롯해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천정형 냉·난방 시설이 설치됐다. 이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65곳을 포함하면 광주지역 282개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매월 학교당 50만~80만원에 이르는 추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에어컨 사용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A중학교는 올 여름 1일 3~4차례(3시간 이내)만 에어컨을 가동했으며, 이마저도 중앙 통제방식으로 희망 온도를 27도로 유지하게 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선풍기 몇 대를 틀어놓은 수준에 그쳤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은 "에어컨 설치 후 처음 며칠만 좀 틀더니, 점차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면서 "선생님께 덥다고 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풍기도 없다'는 꾸중만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이 만만찮다"면서 "아이들이 더위를 참는 것도 교육의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 겨울 난방기 사용 때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학교들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구분없이 '표준 운영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냉·난방기 가동 등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타 명목으로 책정된 운영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돼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고압 A 선택 2 기준 kW/h 5천 200원)'은 '산업용 전기요금(5천 110원)'보다 약간 높다.

한 예로 광주 A고교의 경우 연 2억 1천400여만원의 표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요금은 7천 900만원이며 전기요금은 4천400여만원에 이를 정도다.

이 학교 관계자는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기 가동을 늘릴 경우 학교 운영이 힘들어 진다"면서 "추가 지원이 없는 한 학생들의 요구대로 냉·난방기를 무작정 가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때문에 최신형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는 내년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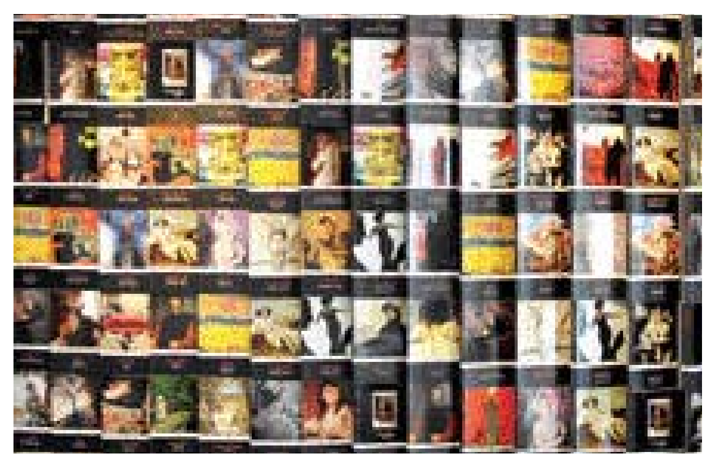
앞으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를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주연 브래드 리틀 인터뷰 ▶12면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펭귄북스'의 북 디자인



책 표지 디자인의 진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 역사관에 전시된 '클루 브랜드'전 출품작. 근대 책 표지 디자인의 세계를 연 영국의 '펭귄 북스'의 다양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책을 돋보이게 하는 표지 디자인의 변천사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고, 책꽂이를 가득 채운 화려한 책의 향연이 볼만하다.

한편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 본전시가 완성품보다는 과거의 유산과 물건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는 전시라면, '클루 브랜드'전은 오스트리아의 명품 와인잔 브랜드 '리델' 등 유명 완성품을 소개한다. /오광록기자 kroh@r

V10 보인다

KIA 광주서 먼저 2승

'V10'에 2승 남았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2연승을 달리며 우승에 2승을 남겨두었다.

〈화보 16면·관련기사 17면〉

KIA는 지난 17일 에이스 윤석민의 7이닝 무실점 투구와,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최희섭의 활약을 앞세워 2-1로 SK를 제압하며 2연승을 달렸다.

KIA는 19, 20일 오후 6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한국시리즈 3·4차전을 치른다.

상승세의 KIA가 3·4차전까지 모두 가져가면 20일 12년 만의 우승이 확정된다. 적지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KIA는 잠실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22일부터 우승을 향한 결전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